**한일 맞장구 표현에 관한 비교 고찰**

**– 맞장구 종류와 빈도수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

일어일본문화전공

201521311

정수진

**목 차**

1.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자료 및 방법
   3. 맞장구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

3-1 맞장구의 정의

3-2 맞장구의 기능

3-3 맞장구 표현의 종류

1. 한일 회화 및 미디어 자료 분석을 통한 맞장구 표현의 실태 분석
   1. 회화 분석
   2. 미디어 분석

2-1 예능 미디어

2-3 뉴스 미디어

1. 결론

<참고문헌>

<부록-녹음회화 문자화 자료->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세계화의 진전으로 이웃나라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진 현대 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은 국가 간의 교류뿐만 아닌 일반인들의 직접적인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이면서도 서로 다른 생활습관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아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란 화자의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청자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화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느낀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데, 이와 같은 언어 행동을 맞장구(あいづち)라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맞장구는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고, 상호 간의 이야기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임영철 1999). 특히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대화 중에 맞장구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또한 상대에게도 맞장구를 요구하며 대화를 진행해 나간다. 임영철·井出里咲子(2004)에 따르면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해 맞장구를 치는 횟수가 약 1.6배 많다고 한다. 반면,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맞장구의 빈도수가 더 적으며 맞장구를 자주 치는 것은 마이너스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任榮哲·李先敏 1995). 이처럼 같은 문화권에 속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는 문화 차이로 인한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언어 학습자는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양국의 맞장구 사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요소로써 맞장구를 들어 다방면에 걸쳐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언어적 맞장구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미디어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맞장구 분석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하에 본고에서는 필자가 직접 녹음한 구체적인 회화 녹음자료를 통해 언어적 맞장구를 비교 분석하고, 기존 미디어 자료는 비언어적 맞장구의 연구 대상으로써 분석한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 비교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맞장구 사용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최종적으론 양국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해도모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맞장구의 빈도수와 종류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인과 한국인의 실제 대화 장면을 이하의 <표1>과같이 녹음하고 문자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번 녹음 과정에서의 한국인과 일본인은 한 그룹당 2명씩 총 5그룹 1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한국인 2그룹과 일본인 2그룹, 일본 거주 경험 한국인 1그룹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거주 경험 한국인 그룹은 일본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하며 아동기와 청년기를 일본에서 보내온 한국인 2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에서의 거주 경험이 맞장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친소관계에 따른 맞장구 빈도수 변화[[1]](#footnote-1)와 자연스러운 회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분석 대상자들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필자의 지인에게 의뢰를 하였고, 성별과 연령은 20대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외국어 공부’라는 큰 테마를 주제로 각 그룹당 10분씩 회화를 진행하였으나, 자연스러운 회화를 위하여 테마에서 벗어난 주제의 이야기 또한 허용하였고, 분석 대상자들에게 맞장구에 관한 연구임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

<표 1> 언어적 맞장구 분석대상자 자료

|  |  |
| --- | --- |
| 대상 | 한국인, 일본인 |
| 연령/성별 | 20대 여성 |
| 그룹/인원 | 일본인, 한국인 각각 2그룹  일본 거주경험 한국인 1그룹  (한 그룹당 2명씩 총 5그룹 10명) |
| 화제 | 외국어 공부 |

회화자료를 문자화[[2]](#footnote-2) 함에 앞서 맞장구의 표기기호와 그 종류는 이하의 <표2>와 같이 표기하였다. 맞장구 발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로 표기하며 동시발화가 시작되는 시점은「[」로 표기하였다 동시발화의 경우엔「★」로 맞장구를 표기하였으며, 단순히 발화 도중 삽입된 청자의 맞장구는「☆」로 표기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종류와 빈도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맞장구의 종류 외에 맞장구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선 따로 표기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표 2> 표기 기호

|  |  |
| --- | --- |
| ☆ | 맞장구 표기 |
| ★ | 맞장구 표기(동시발화) |
| / | 맞장구 발화가 시작되는 시점 |
| [ | 맞장구 발화가 시작되는 시점(동시발화) |
| < > | 맞장구 종류 표기 |
| J1~ J4 | 일본인 회화 참가자 |
| K1~ K4 | 한국인 회화 참가자 |
| K5~ k6 | 일본 거주 경험 한국인 회화 참가자 |

<예시1> 한국인 화자 K3 K4 대화내용 일부

|  |  |
| --- | --- |
| K3 | 와 진짜 맨날 왜냐면 우리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야 맨날 맨날 학교 가는 거 익숙한데…/오후 수업이고 종강 있고[그러는데 [다시 진짜 수험생처럼 매일매일 학교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맨날 맨날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은 학식 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도서실[가고 어어 이렇게 몇 개월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안 늘 수가 없어 |
| K4 | <말 앞지르기>☆응 대학교 가면~ <맞장구어>★응 맞아 맞아  <말 앞지르기>★몇 개 밖에 없는데 <말 앞지르기>★또 공부하고 공부하고… |
| K4 | 안 늘 수가 없는 편이지 일단 학교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

비언어적 맞장구는 이하의 <표 3>에 쓰여진 미디어를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뉴스와 예능 두 개의 분야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반되는 두 개의 미디어를 통해 격식성에 따른 비언어적 맞장구의 빈도수 변화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일본 예능 「松本人志のすべらない話」는 일본 후지TV에서 방영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이름의 출연진이 3분에서 5분 정도 자신의 체험담이나 목격담을 말하는 에피소드 토크쇼이다. 비교 대상인 한국 예능「해피투게더」는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출연진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경험담이나 체험담에 대한 토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예능 미디어의 특성상 촬영 각도에 의해 청취자의 비언어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여, 토크가 이루어질 때 가장 많이 화면에 비추어지는 청취자 한 명을 각각 선정하여[[3]](#footnote-3) 그 청취자가 비언어 행동을 보일 때마다 그 횟수를 세어 조사하였다.   
　뉴스 미디어는 한국의 경우는「JTBC 소셜라이브」145회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참의원 선거 관련 아베 총리의 인터뷰를 실은 「TV asahi」의 보도 뉴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은 예능 미디어와 동일한 조건을 위해 남자 앵커로 선정하였다.

<표 3> 비언어적 맞장구 분석 대상 자료

|  |  |  |
| --- | --- | --- |
|  | 한국 | 일본 |
| 예능 프로그램 | 「해피투게더 3기 302회」  : 4분 00초 | 「松本人志のすべらない話 29話」  : 4분 00초 |
| 뉴스 | 「JTBC 소셜라이브 145회」  : 4분 00초 | 「TV asahi ニュース報道 2016/07/10 」  : 4분 00초 |

**3. 맞장구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

앞서 언급했듯이, 맞장구 표현에 관해선 다방면에 걸쳐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본고에서는 맞장구의 종류와 빈도수 분석에 앞서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맞장구의 정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보고 그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

**3-1 맞장구의 정의**먼저 맞장구의 정의를 3개의 주요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メイナード(1993)는 맞장구를 ‘화자가 발화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청자가 보내는 짧은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堀口(1997)은 ‘화자가 발화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청자가 화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유한 것을 전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水谷(1983)은 ‘맞장구 표현이란, 물음에 답하는 응답 표현이 아니라 진행을 돕기 위해 이야기 도중에 청자가 나타내는 표현에만 한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맞장구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도 위의 선행연구와 같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네’ 「うん」는 맞장구로서 취급하지 않으며, 청자가 화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으로 이해, 부정, 동의,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보내는 언어, 비언어적 행동을 맞장구로서 정의한다.

**3-2 맞장구의 기능**

맞장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堀口(1988), メイナード(1993)의 분류에 의하면 5개의 아래의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표 4> 맞장구의 기능 분류

|  |  |
| --- | --- |
| 1 | 듣고 있다는 표시의 기능 |
| 2 | 이해 표시의 기능 |
| 3 | 동의 표시의 기능 |
| 4 | 부정 표시의 기능 |
| 5 | 감정 표출의 기능 |

화자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동안 청자는 적절한 타이밍에 단순히「はい(네)」「うん(응)」과 같은 맞장구를 치게 되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발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듣고 있다는 표시’의 기능이다. 이러한 맞장구의 기능은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발화자의 이야기 중「あ(아)」「ああ(아아)」와 같이 청자가 발화자의 이야기를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해 표시의 기능’이다.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이 또한 발화자가 안심하고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동의 표시의 기능은「そう(맞아)」와 같이 청자가 발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そうそうそう(맞아맞아맞아)」와 같이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으로 더 강한 동의 표시를 나타내기도 한다. 부정 표시의 기능은 화자의 말을 이해는 했으나 동의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때의 보내는 신호로「え? (어?)」「そうだっけ? (그랬어?)」와 같이 표현한다. 감정 표출의 기능은 놀람이나 기쁨, 슬픔, 화남 등의 자신의 감정을 맞장구로서 전할 때 나타나며 이 기능을 통해 화자는 청자가 심리적으로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예시로서는 ‘진짜?’ ‘오’ 등이 있으며 일본어로는 「へえー」「フーン」「ヘーン」등이 있다.

**3-3 맞장구 표현의 종류**

任榮哲·李先敏(1995)의 분류에 의하면 맞장구의 언어, 비언어적 표현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표 5> 맞장구 표현 분류

|  |  |
| --- | --- |
| **언어적 맞장구표현** | **비언어적 맞장구표현** |
| 맞장구어(あいづち詞) | 고개 끄덕임(うなづき), |
| 반복표현(繰り返し) | 웃음(笑い) |
| 환언표현(言い換え) | 미소(スマイル) |
| 말 앞지르기(先取り) | 고개 저음(頭の横振り |
|  | 놀란 표정(驚きの表情) |

언어적 맞장구의 종류 중 하나인 맞장구어(あいづち詞) [[4]](#footnote-4)는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으로 사용되는 「へー」「はい」「ええ」「うん」「ほんとう」「なるほど」「そうですか」등을 말하며, 한국어로는 「네」「예」「역시」「그래」「맞아요」등에 해당하는 표현을 말한다. 여기서 맞장구어의 표현형식은 그 종류가 방대하고 다양하므로 이하의 <표 6>과같이 분류하기로 한다.

<표 6> 맞장구어의 표현형식 분류[[5]](#footnote-5)

|  |  |  |
| --- | --- | --- |
| はい계 | 정의 | ‘예/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나 명령에 대한 응답 형식의 대답이 아닌,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맞장구어 |
| 표현 예 | はい, うん, いいえ, いや |
| そう계 | 정의 | ‘そう’를 포함하는 맞장구어 |
| 표현 예 | そう, そうか, そうですね, そうだね |
| 감탄사 | 정의 | 기쁨, 유감, 놀람, 의심 등의 감정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맞장구어 |
| 표현 예 | あー, えー, へー |
| 기타 | 정의 | ‘はい계’, ‘そう계’, ‘감탄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그 외  의 맞장구어 |
| 표현 예 | ほんとう, ねー, なるほど |

반복표현(繰り返し)은 화자의 발화내용의 일부, 또는 그 전체를 다시 언급하는 것을 말하며, 화자의 발화내용을 이해하며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관심표현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다. 金亨南(2012)은 이러한 반복표현은 의문형태로 반복하여 되물음으로써 의외의 느낌이나, 놀라움 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상대방의 발화를 공감하며 들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환언표현(言い換え)은 화자가 말한 것을 청자가 이해한 뒤,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재표현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맞장구와는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이 또한 화자와의 대화속에서 나타나는 청자의 반응이므로 맞장구로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말 앞지르기(先取り)는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고 그다음 발화 내용을 예측하여 맞장구를 치는 것을 말하며 발화자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수록 빈도수가 높아지는 맞장구라고 할 수 있다.  
　비언어적 맞장구의 종류 중 하나인 고개 끄덕임(うなづき)은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들으며 머리를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이다. 이는 ‘응’과 같은 긍정의 응답사가 맞장구의 한 형태로 전이되어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金亨南 2012). 화자의 발화에 대한 가벼운 반응인 웃음(笑い) 또한, 화자의 발화를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맞장구에 속하며,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고개 저음과 놀란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맞장구 표현 또한 유감의 표시, 놀라움 전달 등 상대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기능을 함으로 맞장구의 한 종류로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다양한 맞장구의 종류 중에서 최종적으로 본고에서는 언어적 맞장구 표현의 맞장구어와 반복표현, 환언표현, 말 앞지르기를 나누어 분석하며, 비언어적 맞장구 표현에서는 고개 끄덕임과 웃음[[6]](#footnote-6)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ll. 한일 회화 및 미디어 자료 분석을 통한 맞장구 표현의 실태 분석**

**1. 회화분석**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의 실제 음성 회화 자료를 통해 맞장구의 종류와 빈도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논문의 전체적인 비교 분석 방법은 선행연구 가운데 任榮哲·李先敏(1995), 堀口(1988), 金亨南(2012)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였다.  
　회화 녹음자료의 문자화 분석 결과, 한국인 회화자 4명(2그룹)은 20분 동안 총 107회의 맞장구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반해 일본인 회화자 4명(2그룹)은 20분 동안 총 269회의 맞장구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본 거주 경험 한국인 2명(1그룹)은 총 95회의 맞장구 표현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개인 데이터는 이하의 <표 7>, <표 8>, <표 9>와 같으며 <표 10>은 각각의 평균값을 나타낸 표이다.

<표 7> 한국인 회화에서 나타난 맞장구 표현의 종류와 사용빈도

|  |  |  |  |  |  |  |
| --- | --- | --- | --- | --- | --- | --- |
|  | 맞장구어 | 말 앞지르기 | 비언어(웃음) | 반복표현 | 환언표현 | 합계 |
| K1 | 15회(57.7%) | 6회(23.1%) | 1회(3.85%) | 1회(3.85%) | 3회(11.5%) | 26회(100%) |
| K2 | 11회(73.3%) | 3회(20%) | 0회(0%) | 1회(6.7%) | 0회(0%) | 15회(100%) |
| K3 | 16회(47.1%) | 13회(38.2%) | 0회(0%) | 5회(14.7%) | 0회(0%) | 34회(100%) |
| K4 | 18회(56.3%) | 10회(31.2%) | 0회(0%) | 0회(0%) | 4회(12.5%) | 32회(100%) |
| 합계 | 60회(56.1%) | 32회(30%) | 1회(0.9%) | 7회(6.5%) | 7회(6.5%) | 107회(100%) |

<표 8> 일본인 회화에서 나타난 맞장구표현의 종류와 사용빈도

|  |  |  |  |  |  |  |
| --- | --- | --- | --- | --- | --- | --- |
|  | 맞장구어 | 말 앞지르기 | 비언어 | 반복표현 | 환언표현 | 합계 |
| J1 | 28회(80%) | 3회(8.6%) | 3회(8.6%) | 1회(2.8%) | 0회(0%) | 35회(100%) |
| J2 | 60회(71.4%) | 2회(2.4%) | 13회(15.5%) | 6회(7.1%) | 3회(3.6%) | 84회(100%) |
| J3 | 47회(73.4%) | 13회(20.3%) | 1회(1.6%) | 3회(4.7%) | 0회(0%) | 64회(100%) |
| J4 | 71회(82.5%) | 6회(7%) | 1회(1.2%) | 1회(1.2%) | 7회(8.1%) | 86회(100%) |
| 합계 | 206회(76.5%) | 24회(9%) | 18회(6.7%) | 11회(4.1%) | 10회(3.7%) | 269회(100%) |

<표 9> 일본 거주경험 한국인 회화에서 나타난 맞장구표현의 종류와 사용빈도

|  |  |  |  |  |  |  |
| --- | --- | --- | --- | --- | --- | --- |
|  | 맞장구어 | 말 앞지르기 | 비언어 | 반복표현 | 환언표현 | 합계 |
| K5 | 52회(88%) | 5회(8.6%) | 1회(1.7%) | 1회(1.7%) | 0회(0%) | 59회(100%) |
| K6 | 33회(91.6%) | 0회(0%) | 1회(2.8%) | 1회(2.8%) | 1회(2.8%) | 36회(100%) |
| 합계 | 84회(88.4%) | 6회(4.2%) | 2회(2.1%) | 2회(2.1%) | 3회(3.2%) | 95회(100%) |

<표 10> 한일 회화에서 나타난 맞장구 사용빈도 평균값

|  |  |  |
| --- | --- | --- |
| 한국인 | 일본 거주 경험 한국인 | 일본인 |
| 27회 | 47.5회 | 67회 |

　분석 결과,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해 약 2.4배 더 맞장구를 많이 치고 있었으며, 거주 경험 한국인보다는 1.4배 더 많이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일본 거주 경험 한국인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만큼의 맞장구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인에 비해서는 약 1.7배 더 많이 맞장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맞장구 표현의 종류별 분석 결과, 한국인 화자와 일본인 화자, 일본 거주 경험 한국인 모두 맞장구어가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비언어(웃음)가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일본인 회화자와 일본거주 경험 한국인과 같은 경우엔 말 앞지르기의 비율이 전체 10%에 달하지 않는 반면, 한국인 회화자의 대화 장면 중에선 말 앞지르기가 전체 30%를 차지하는 특징적인 부분 또한 보여주고 있다. 맞장구 표현에 관한 구체적인 특징별 예시와 기능적인 측면 분석은 이하의 <예시>와 같다.

<예시2> 한국인 화자의 맞장구어가 나타난 대화장면

|  |  |
| --- | --- |
| K3 | 근데 나도 독일어를 전공을 하잖아 전공을 하고 나름 이제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독일어를 너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왜냐면 외고 다니는 애들은 이미 나보다 훨씬 잘하는 상태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메리트가 안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독일을 내가 갔는데, 원래는 한 학기만 교환학생을 있는 거였었거든? 근데 이제 독일어를 사실 교환학생 애들이랑만 있다 보니까/(중략) |
| K4 | <맞장구어>☆응 맞아 처음에 너가 그랬잖아 <맞장구어>☆응 |

여기서 K4의 맞장구어 ‘응 맞아 처음에 너가 그랬잖아’는 맞장구어라는 종류 안에서도 ‘そう’계에 속하는 맞장구어로, 발화자의 ‘이미 독일어를 너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라는 말에 동의하며 납득을 하고 있다는 동의 표시의 기능으로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용된 맞장구어 ‘응’은 분류상 ‘はい’계에 속하는 맞장구어로, 청자가 발화자와의 대화의 흐름을 위하여 이야기를 단지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듣고 있다는 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시3> 일본인 화자의 맞장구어가 나타난 대화장면

|  |  |
| --- | --- |
| J3 | なんかそのうんーって考えてる間に何かを言うみたいな/ちょっと考えさせて/みたいなのも言えないから/なんかシーンってなっちゃうし、/なんかそれなみたいな (中略) |
| J4 | <맞장구어>☆うん <맞장구어>☆うん <맞장구어>☆うんうん  <맞장구어>☆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

　J4가 첫 번째로 사용한 맞장구어 「うん」은 ‘はい’계에 속하는 맞장구어로 단지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능과 흡사한 면이 있지만「なんかそのうんーって考えてる間に何かを言うみたいな」라는 발화자가 전달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여 졌기 때문에 이해 표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맞장구어 「うん」또한‘はい’계에 속하는 맞장구어로 「ちょっと考えさせて」라는 발화자의 예시를 이해했다는 이해 표시의 기능으로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맞장구어 「うんうん」또한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はい’계에 속하지만 이는 발화 내용을 듣고 이해했음을 나타내는 기능이기보단 단순히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능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맞장구어인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는 ‘そう’계에 속하는 맞장구어이며 발화자의 발화 내용에 동의하며 납득을 했음을 나타내는 동의 표시의 기능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そう」를 5회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단순「そう」보다는 더 큰 동의 표시를 나타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そう」의 반복형은 필자의 문자화 분석 결과, 일본인 화자의 대화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일본인 화자의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예시4> 일본인 화자의 맞장구어가 나타난 대화장면

|  |  |
| --- | --- |
| J3 | 発音、ずっと聞いてないと分からないよね、発音…でもなんか英語もだから本当にもっともっといっぱい聞いてたら/絶対話す時に違っただろうと/めっちゃ思う/ |
| J4 | <맞장구어>☆ね、なんか <맞장구어>☆ 確かに <맞장구어>☆ 確かに |

여기서 J4가 첫 번째로 사용한 맞장구어 「ね、なんか」는 ‘はい’와 ‘そう’, 감탄사 계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계열에 속하는 맞장구어로 동의 표시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쓰여진 맞장구어 「確かに」또한 기타 계열에 속하는 맞장구어로 동의 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필자의 문자화 분석 비교 결과, 한국인 화자는 자주 쓰지 않는 맞장구어임과 동시에 일본인 화자의 대화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특징적인 맞장구로서 분석되었다.

<예시6> 한국인 화자의 말 앞지르기가 나타난 대화장면

|  |  |
| --- | --- |
| K4 | 나는 점수를 내려는 게 아니라[우리 학교 3품 제도가 있는데 그게 창의품이라고 그래서[어 진짜로 그거를 창의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중략) 근데 이거 못하면 유예시키면 돼 일부러 유예하고 싶은 사람들은/어~ 그렇게 해서 유예시키고 막 이러는데 |
| K3 | <말 앞지르기>★그냥 어떤 유형인지? 아니면은…  <말 앞지르기>★신라시대?(웃음)  <말 앞지르기>★안 채우려고? |

K3의 첫 번째 맞장구는 K4의 발화 내용을 듣고 미리 예측을 하여 ‘그냥 어떤 유형인지? 아니면은…’이라는 의문형으로 K4의 발화를 완결 짓는다. 堀口(1987)는 청자의 예측은 2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측한 것을 화자가 말하기 전에 청자가 말하는 형태로 이것을 ‘말 앞지르기 완결’이라고 정의하며 두 번째는 예측에 의거하여 맞장구를 치는 형태로 ‘말 앞지르기 맞장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말 앞지르기 완결은 청자가 말 앞지르기로 말한 내용이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면 화자는 그 부분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K3의 첫 번째 맞장구는 ‘말 앞지르기 완결’에 해당하지만, 화자의 의도가 청자의 예측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 ‘우리 학교에 3품제도가 있는데~’라는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세 번째 맞장구 ‘신라시대?(웃음)’ 는 ‘신라시대에 있는 제도와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는 의문형 맞장구로 이 또한 말 앞지르기 완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화자는 ‘어 진짜로 그거를 창의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라는 대답을 하며 청자의 예측이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맞장구‘안채우려고?’ 또한 위와 같이 말 앞지르기 완결에 속하며 청자의 예측이 화자의 의도와 일치한 형태이다. 이러한 말 앞지르기는 기능적인 측면에선 청자가 부족한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는 행위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화자에게 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감정 표출의 기능으로서 분석하였다.

<예시7> 일본인 화자의 말 앞지르기가 나타난 대화장면

|  |  |
| --- | --- |
| J3 | 日本語にもその使い分けは/あるけど…/気にしてないよね。 |
| J4 | <맞장구어>★そう <말 앞지르기>★あるけど気にしてないから |
| J4 | なんかさ、/耳よくないとさ/耳よくないというか、耳でさ、なんか音がさ、なに音をなんか取るみたいなのをなんて言うの？口にする前に…/うん、そのまま |
| J3 | <맞장구어>☆うん <맞장구어>☆うん <말 앞지르기>☆聞いたのをそのまま |

　J4의 첫 번째 말 앞지르기「あるけど気にしてないから 」는 J3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예측하여 화자의 발화를 완결시키는 말 앞지르기 완결로 볼 수 있으며 J4의 발언에 대해 「気にしてないよね」라는 대답을 하는 것으로 청자의 말 앞지르기가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말 앞지르기 「聞いたのをそのまま」와 같은 경우도 말 앞지르기 완결 형태이며 이 또한 화자와의 의도가 일치했기 때문에 「うん、そのまま」와 같이 긍정의 응답사를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선 위의 말 앞지르기 모두 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청자 자신이 느낀 부족한 정보를 추가하여 말한 것으로 이 또한 감정 표출의 기능 중 하나 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문자화 분석 결과 일본인 화자는 위와 같이 상황에 맞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담화를 완결시키지 못할 때 도움을 주는 형태로 말 앞지르기 완결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水谷(1988)는 이러한 일본인의 회화 성격을 ‘공화’[[7]](#footnote-7)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 일본인 화자의 말 앞지르기에서는 같은 맞장구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화자에 비해 공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화자의 경우엔, 화자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말을 끊고 부족한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청자와 화자가 합동하여 하나의 발언을 완성시키는 공화와는 다른 형태를 보였다. 일본 거주 경험 한국인의 경우엔 말 앞지르기가 나타난 횟수가 10분간 5회밖에 되지 않았으나 한국인 화자와 비슷한 성향의 말 앞지르기 완결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예시8> 한국인 화자의 반복표현이 나타난 대화장면

|  |  |
| --- | --- |
| K3 | 너 토익 언제 봐? |
| K4 | 나 이번 달 말에/ |
| K3 | <반복>☆이번 달 말에 본다고? 너 토익 공부 한지 얼마나 됐어? |

　<예시8>은 K3가 K4에게 토익 시험 관련 일정을 묻고 있는 내용이다. K4의 ‘나 이번 달 말에’라는 응답에 대해 K3는 ‘이번 달 말에 본다고?’라고 되물으며 앞서 화자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맞장구를 반복표현이라고 하며, ‘생각했던 것 보다 빠른 시기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놀라움을 표출하고 있으므로 이는 감정 표출의 기능으로써 분석된다.

<예시9> 일본인 화자의 반복표현이 나타난 대화장면

|  |  |
| --- | --- |
| J4 | なんか発音ね、なんか、なんていうか/ |
| J3 | <반복>☆発音ね |

　<예시9>는 일본인의 「ん」발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J4의 「なんか発音ね、なんかなんていうか」라는 말에 J3가「発音ね」를 그대로 반복하여 사용하는 반복표현 맞장구이며 상대의 말에 동의하며 납득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의 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예시10> 한국인 화자의 환언표현이 나타난 대화장면

|  |  |
| --- | --- |
| K2 | 근데 언어는 좀 센스 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내 친구 하나가 그냥 완전 토종 한국인인데 영어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내 친구가 진짜 잘해/어 남자를 만나야 돼 |
| K1 | <환언>☆샬라샬라? |

　K1의 맞장구 ‘샬라샬라?’는 K2의 ‘내 친구 하나가 영어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진짜 잘해’라는 말을 이해한 뒤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재표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맞장구를 환언표현이라고 하며 이는 화자가 앞서 말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해 표시의 기능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예시11> 일본인 화자의 환언표현이 나타난 대화장면

|  |  |
| --- | --- |
| J3 | なんか、自分で馳せないけど/聞いて意味は分かるから/読んで、とか/なんか、だからそれがわかるようになってから早かった気がする/ |
| J4 | <맞장구어>☆うん <맞장구어>☆うん <환언>☆うん、読み方ね　<맞장구어>☆あー <환언>☆あー入ってくるみたいな |

<예시11>은 J3와 J4가 한국어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 J4의 세 번째 맞장구인 「うん、読み方ね」는 J3의 「読んで、とか」라는 말을 이해한 뒤,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여 「読み方」로 재표현 한 것이기 때문에 환언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해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 섯번째 맞장구인 「あー入ってくるみたいな」도 마찬가지로 앞서 J3가 말한 「それがわかるようになってから早かった気がする」라는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재표현한 환언표현이며 위와 동일하게 이해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다양한 예시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맞장구의 표현 형식과 기능별 분석을 함으로써 한일 맞장구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종합적인 한국인과 일본인의 평균 맞장구 횟수와 종류 비교는 이하의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한일 회화에서 나타난 맞장구 종류 평균값 비교

<그림 2> 1분당 맞장구 횟수 평균값

그 결과 일본인은 1분당 6.7회의 맞장구를 치는 것에 비해 한국인은 1분당 2.7회의 맞장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본거주 한국인 또한 4.7회로 일본인의 맞장구 횟수인 6.7회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堀口(1990)는 일본어 학습이 진행될수록 맞장구 표현의 빈도, 종류, 적절함 등에 있어서는 일본인 화자에 가까워지지만 빈도에 있어서는 일본인의 5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본고의 연구 대상인 ‘일본 거주 경험 한국인’의 경우에는 ‘일본어 학습자’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놓여 있지만 빈도, 종류, 적절함에 있어 일본인과 가까운 모습을 보였으며 빈도 또한 약 1.4배 정도의 차이로 堀口의 연구대상인 ‘일본어 학습자’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필자는 이와 같은 결과를 거주 경험의 차이로 보아 거주 경험이 일본어의 단순 학습보다는 맞장구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맞장구의 종류별 사용 양상은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하게 맞장구어를 높은 비율로 사용하였으나, 일본인이 맞장구어를 사용한 총 평균값은 51회인 것에 비해 한국인은 15회 정도였으며 일본 거주 경험 한국인 또한 47회로 51회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동일하게 본고에서도 일본인 화자가 말 앞지르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맞장구 표현에서 한국인 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맞장구어를 제외한 다른 종류에선 그다지 큰 차이는 보여 지지 않았다. 말 앞지르기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인 화자의 맞장구에선 공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국인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배려와 이해를 대화의 가치로 생각하여 최종 목적을 상대 발화자와의 조화로 여기는 일본인의 담화 스타일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담화라는 개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가치관 차이의 결과로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미디어 분석**

본고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예능 미디어와 뉴스 미디어를 통하여 비언어적 맞장구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맞장구의 종류는 고개 끄덕임(うなづき)과 웃음(笑い)만을 분석하였다. 미디어 자료의 전체적인 분석방법은 任榮哲(1999)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였다.

**2-1 예능 미디어**

<표 11> 한일 비언어 맞장구표현의 형식별 사용 빈도(예능)

|  |  |  |
| --- | --- | --- |
| 맞장구표현의 형식 | 한 국(%) | 일 본(%) |
| 고개 끄덕임(うなづき) | 31(91.2%) | 78(78.8%) |
| 웃음(笑い) | 3(8.8%) | 21(21.2%) |
| 합계 | 34(100%) | 99(100%) |

위 표는 한일 비언어 맞장구 표현의 형식별 사용 빈도를 나타낸 표이다. 한국은 4분동안의 토크 중 31회의 고개 끄덕임(うなづき)과 3회의 웃음(笑い)으로 합계 34회의 비언어적 맞장구가 나타난 것에 반해, 일본은 4분동안의 토크 중 78회의 고개 끄덕임(うなづき)과 21회의 웃음(笑い)으로 합계 99회의 비언어적 맞장구가 나타났다. 즉,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약 2.9배 정도 더 비언어적 맞장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1-3 뉴스 미디어**

<표 12> 한일 비언어 맞장구표현의 형식별 사용 빈도(뉴스)

|  |  |  |
| --- | --- | --- |
| 맞장구표현의 형식 | 한 국(%) | 일 본(%) |
| 고개 끄덕임(うなづき) | 17(100%) | 87(93.5%) |
| 웃음(笑い) | 0(0%) | 6(6.5%) |
| 합계 | 17(100%) | 93(100%) |

<표 12>에 따르면 한국은 뉴스 미디어에선 총 17회로 맞장구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일본은 총 93회로 일본이 한국보다 맞장구 표현을 약 5.4배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웃음(笑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반해 일본은 뉴스 진행 도중 잔잔한 미소를 띠는 등 6.5%의 비율로 비언어적 맞장구 표현인 웃음(笑い)을 사용하였다.

<그림 3> 1분당 맞장구 횟수 평균값

분석 결과 한국은 예능 미디어에서 총 34회의 맞장구 표현 사용으로 10초에 약 1.4회 맞장구를 치고 있지만, 뉴스의 경우에는 총 17회로 맞장구 표현이 감소하며 10초에 약 0.7회의 사용으로 격식적인 자리에서 맞장구 횟수가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예능 미디어에서 총 99회의 맞장구 사용으로 10초에 약 4.1회, 뉴스는 93회, 10초에 약 3.9회로 격식성과 맞장구의 횟수가 반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任榮哲·李先敏(1995)은 장면 변화에 따른 한일 맞장구의 빈도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인은 공식적인 자리에선 맞장구 빈도수가 적어지지만 일본인은 반대로 높아지며 비공식적인 자리에선 한일 모두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본고에서의 미디어 분석 결과 또한 위의 선행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한국인은 비공식적인 자리와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맞장구가 반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본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른이 말씀을 하실 때엔 경청하는 것이 예의이다’라는 말처럼 한국에서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손윗사람과의 대화에서나 공식적인 장면에서는 크게 맞장구를 치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로서 일컬어지고 있다. 맞장구를 쳐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인은 맞장구라는 행위 자체를 상대방과의 담화에 대한 예의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장면에 관계없이 맞장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lll.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시행한 회화 음성녹음 자료와 기존에 존재하던 미디어인 뉴스와 예능, 그리고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맞장구 표현의 사용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회화 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과 한국인뿐만 아닌 일본 거주 경험 한국인이라는 그룹을 선정하여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본에서의 거주 경험이 단순 학습자보다는 맞장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지만, 분석 대상이 소수인 점을 생각해보면 이를 완전히 일반화를 시키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예능 미디어의 비언어 분석 결과, 예능은 시청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인 만큼 한일 양국 모두 맞장구 표현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공적인 미디어인 뉴스에서는 한국인은 맞장구 횟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에 반해 일본은 격식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맞장구를 통해 공감을 형성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와 같은 문화 관점의 차이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여러 가지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각 나라에 대한 편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도 일본에서 유학했던 당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지만, 맞장구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난관을 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본어를 알고 이해하는 것에 더불어 이러한 배경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실제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제는 언어를 단지 문자, 언어적인 측면에서만 보아 학습하는 것이 아닌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며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자라면 중요한 과제로써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맞장구(あいづち)」이다. 지금까지 언어적 맞장구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언어적 맞장구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비언어적 맞장구에 관한 부분을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지만, 연구의 대상이 되는 피험자의 인원이 적었으며, 방송 미디어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맞장구 표현을 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특히 예능의 경우, 시청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도한 리액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맞장구 표현을 사용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실제 일본인과 한국인의 일상 회화 장면을 촬영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비언어적 맞장구 표현의 분석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양한 연령대, 성별, 그리고 장면에 있어서의 차이를 둔 좀 더 폭넓은 형태의 맞장구 실태조사를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싶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배소현(1998)「맞장구표현에 관한 한일대조 고찰」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任榮哲(1999)「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Foreign languages education』Vol.5 No.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pp.309-320  
任榮哲(2003)「日本人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사회언어학』 제11권 제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李先敏(2003)「言語行動의 社会言語学的考察：韓日의 断り・あいづち・先取り를중심으로」『論文集』第17　　  
　　集, 大邱産業情報大学  
박미경(2005)「맞장구표현에 관한 韓・日　比較研究 -드라마 『겨울연가』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논문  
金亨南(2012)「맞장구 표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드라마 분석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朴宣貞(2014)「한국인 중·상급일본어학습자의 맞장구 사용양상에 관한 연구-일본어모어화자와의 접촉장　　　　  
　　면을 대상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주영(2016)「한일 맞장구 사용양상에 관한 대조연구 -상담 장면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일본문헌]

水谷 修(1979)『話しことばと日本人―日本語の生態』創拓社出版

水谷信子(1983)「あいづちと応答」『日本語表現３話しことばの表現』筑摩書房

水谷信子(1984)「日本語教育と話しことばの実態―相づちの分析―」『金田一春彦博 士古稀記念論文集第２

巻言語学編』三省堂

メイナード、泉子・K.(1987)「日米会話におけるあいづち表現」『月刊言語』16-12号

堀口純子(1988)「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聞き手の言語行動」『日本語教育』64号, 日本語教育学会

水谷信子(1988)「相づち論」『日本語学』第七巻 第13号 明治書院

堀口純子(1990)「上級日本語学習者の対話における聞き手としての言語行動」『日本語教育』71号, 日本語

教育学会

メイナード、泉子・K.(1993)『会話分析』くろしお出版

渡辺恵美子(1994)「日本語学習者のあいづちの分析-電話での会話において使用された言語的あいづち」『日

本語教育』82号 日本語教育学会

任榮哲·李先敏(1995)「あいづち行動における価値観の韓日比較」『世界の日本語教育』 5, 国際交流基金 日本

語国際センター

堀口純子(1997)『日本語教育と会話分析』くろしお出版

松田陽子(1998)「対話の日本語教育学―相づちに関連してー」『日本語学』第七巻 第13号  
任榮哲·井出里咲子(2004)『箸とチョッカラㇰ』大修館書店出版  
斎藤明美(2005)『ことばと文化の日韓比較』世界思想社出版

洪珉杓(2007)『日韓の言語文化の理解』風間書房出版

**<부록>**

-녹음회화 문자화 자료-

(한국인 회화)

|  |  |
| --- | --- |
| K1 | 근데 스페인어가 영어…다음으로 많이 쓰지 않아요? |
| K2 |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 요즘엔 진짜 남미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뭔가 스페인어 쓰는 사람 진짜 많아. 외국에서 의외로 불어 쓰는 사람 별로 없어 독일어는 좀 많이 쓰이고 은근 그 위쪽에서 독일어 진짜 많이 쓰이는데 진짜 그 내가 느꼈어. 내가 독일 스위스 체코 프랑스 갔는데 스페인어 쓰는 사람이 진짜 많아/스페인어 쓰는 사람들 앵간해서는 다 그거 하더라 불어? 의외로 의외로 많이 안 쓰고 독일어나 [영어는 다 쓰지[다들 잘 해 유럽 사람들 영어 진짜 잘해 |
| K1 | ☆아… ★영어도? 영어보다? ★영어는 제일 쓰지 |
| K1 | 러시아 사람들 영어 되게 못하던데? |
| K2 | 러시아 사람들은…그치 |
| K1 | 스페인어…아… |
| K2 | 나 스페인어 배우고 싶어 |
| K1 | 근데 언니 영어 잘하니까 스페인어 지금 공부할 수…아닙니까? (웃음) |
| K2 | 스페인어 뭐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배우려고 뭔가...뭔가 아 나는 사실 중국어랑 일본어가 [좋긴 좋은데 난 일본어가 너무 힘들었어 내 딴에는 고등학교 때 뭔가 너무 어감이 너무 힘들었어 나한테는 내가 느껴지기에는 너무 힘들었어 이게 |
| K1 | ★아~ |
| K1 | 근데 어순 같아서… |
| K2 | 일본어? |
| K1 | 일본어가 사실 중국어보다 더 [쉽긴 |
| K2 | ★하지 맞아 쉽긴 하지. 맞아 중국어는 성조가 너무 어려워서 중국어는 애들이 그러더라고 어중간하게 딱 어느 정도 수준 그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대 너무 어려워서 |
| K1 | 그 성조가 진짜[제가 중국어 수업을 두 번 들었었는데 1학년 때 그게 진짜…차라리 저는 일본어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 한자 쓰고 오히려 한자 외우고 하는 거는 좀 한자가 달라도 좀 이제 그 대충 한자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그런 건 이제 쓰기 막 읽기 이런 건 쉬운데 진짜 그 말하기가 맨~날 성조에서 틀리고 |
| K2 | ★어어 |
| K2 | 이게 높낮이에 따라 의미도 달라지잖아 |
| K1 | 근데 그거를 물어봤어요 중국어 하는 애한테 그니까 막 예를 들어 내가 샤오? 샤오샤오 막 이렇게 했는데 얘가 아니래요 그게/나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데 걔는 샤오샤오이러는데 샤오샤오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땐 다 똑같은데 걔네는 이게 이건 이, 삼이고 이거는 삼성 이성이고 막 그런[근데 이건 진짜 살다 와서 거기서 좀 많이 해본 사람[아니면은 진짜 중국어는 조[금 |
| K2 | ☆응 ★맞아 ★맞아 맞아 ★맞아 |
| K2 | 근데 언어는 좀 센스 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내 친구 하나가 그냥 완전 토종 한국인인데 영어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내 친구가 진짜 잘해/어 남자를 만나야/돼 |
| K1 | ☆샬라샬라? ☆하…인정 |
| K2 | 걔 진짜 네이티브보다 잘해 왜냐면 나랑 같이 다니는 남사친 오빠가 진짜 뉴질랜드 국적이야 외국인이야 한국 사람인데 근데 오빠가 내 그 아 내가 옛날에 보여주지 않았나? 나랑 같이 다니는 여자애 두 명 중에서 몸매 되게 좋다는 여자애가 하나 있거든 하얀 애 그니까 모찌모찌 같이 생긴 애 말고 다른 애 걔가 나 맨날 프사에 있고 그런 앤데 걔가 진짜 영어를 잘해 끝내주게 잘해 그런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구사를 잘하는게 아니라 막 리액션 같은 거 있잖아 진짜 현지인이라서 할 수 있는[그런 리액션들 있지 그런 은어나 이런 것들도 [다 다 통달할 정도로 그냥 그냥 얘는 언어야 |
| K1 | ★아 ★자연스럽구나 |
| K2 | 그래서 어느 20대 앉혀놔두 통역...? 음 얘는 오히려 통역을 못해 용어가 되게 익숙해서 토종 한국인인데 남자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걔가 약간 문화 자체가 약간 애가 한국인이 아닌 좀 트여 있는 애여 가지고 항상 좀 미국 문화 이런 걸 좀 좋아했어 가지고 미드 같 같은 엄청 봤거든 되게 안 그렇게 생겼는데[어어 걔는 그니까 스펀지 같아 애가 근데 걔는 중국어도 잘해 걔가 공부는 못하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빡치는 게 영어 베이스 수업이나 중국어 베이스 수업이면 하면 되잖아? 그게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건데 공부는 못하는데 언어는 진짜 스펀지같이 잘해 내가 진짜 A야 넌 진짜 공부하면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진짜 맨날 영어 배우잖아 우리는 읽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걔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
| K1 | ★그냥 자연스러운 거구나 |
| K1 | ★타고난 거구나 진짜 |
| K2 | 타고날 수가 있는 거 같아 언어는 그 그 센스가 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언어적인 거에 있어서 노력도 어지간히 있는데 노력보다는 언어를 받아들이는 뇌가 기능이 있는 것 같아 |
| K1 | ★응응 |
| K2 | 그래서 그 오빠가 내 남사친 오빠가 뉴질랜드 국적인 오빠가 얘같이 한국인인데 얘같이 영어 하는 애 처음 봤다고 그랬어 너무 부럽더라[고 |
| K1 | ★진짜… |
| K1 |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뭔가 많은 언어를 구사해보고 싶긴 해요 [진짜 나라 가서 한번 이해해 보고 싶기도 하고 |
| K2 | ★나 그… |
| K2 | 근데 진짜 멋있었어 나 이번에 UN 그 스위스 우리 UN 제네바 본부에 갔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랑 식사를 했어 UN 사람들이랑 총 8개국어를 한다는 거야[그 사람이 그래서 인제 그 사람이랑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는데, 우리 거기서 이제 독일 사람 독일 올림픽협회랑 같이 일했거든 강릉시청이랑? 그래서 이제 독일 올림픽 사람들이랑 독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도 있었고 캐나다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유럽인도 한두명 껴있었고 프랑스 사람들 그 사람은 8개국어 할 줄 아니까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까지 할 수 있었거든? 그 안에서 있어서는? /어 자유롭게 듣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몇 가지 언어가 뒤섞이는데 테이블 안에서 와아…이거 보면서 와…/어 너무 잘해 진짜 우리나라처럼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애 근데 진짜/말을 너무 잘해 우리나라는 맨날 막 쓰고 이런 거만 중요시하고 하니까[결국 응 결국 뭐 말이 제일 중요한데 너무 멋있었어 8개국어 |
| K1 | ★와… ☆응 ☆멋있다 ☆(웃음) ★토익 점수 |
| K1 |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 멋있을 것 같애 그런 사람들 |
| K2 | 장난 아니었어 진짜 문화충격받았다니까 진짜 와… |
| K1 | 근데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외국에 나가고 싶어 하고 또 외국에 나가본 적도 있고 그런 걸 좀 많이 보다 왔다 보니까 진짜 느끼는 게 진짜 많은 언어 구사하는 게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진짜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지금은 아직 너무 일단 아직 취준 준비 중이고 이제 벅차니까 지금은 이제[다른 언어를 또 하기에는 너무 그런데 근데 진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진짜 지금 일본어 하는 것만큼은 솔직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조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다른 언어로 |
| K2 | ★응 ★배워보고 싶어 |
| K1 | 근데 스페인어도 괜찮은데? 진짜 스페인어 왜냐면 쓰는 나라가 많으니까/ |
| K2 | ☆어 맞아 요즘엔 남미가 많이 뜨니까 |
| K1 | 근데 이게 또 그 나라 갔다 오면 그게 또 있는 거 같애 저도 러시아 갔다 오고 나서 러시아어 진짜 배우고 싶거든요/발음이…/발음이 뭔가... 근데 러시아어가 제일 어렵대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래/근데 일단 쓰는 거도 그거예요 그 뭐지 알파 베타…/그런 건데 이제 글씨도 어렵고 그렇긴 한데 그리구 이게 또 웃긴 게 사람이 관종이라고 제가 러시아 갔다 와서 찍은 사진 같은 거 인스타에 막 올리고 러시아어 가끔 해시태그도 하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팔로우를 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팔로우 해준거를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하니까 아 괜히 뭔가 또 약간 관종끼가 생겨가지고 아 뭔가 러시아어로 한마디 글 써주고 싶고 그리고 걔네들한테 DM도 오고 하니까 아 뭔가 약간 러시아 쪽에도 케이팝 팬들 진짜 많고 |
| K2 | ☆아 러시아어… ☆어~ ☆아 그래? ☆어 ☆ 맞아 맞아 맞아 맞아 |
| K2 | 나도 유럽 가서 되게 놀랐어 프랑스 가서 특히 프랑스에 저번에 갔는데 방탄이 왔었대 그 전주에/방탄 장난 아니드라 난 방탄 사실 누구 있는지 몰라 뷔 한 명 알아 너무 이름이 신기해서/나 누구 있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
| K1 | ☆와… ☆이름…(웃음) |
| K1 | 그치 요즘 또 케이팝이 그렇게 뜨니까 뭔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나라 언어까지 구사하고 하면 더 멋있어 보이고 |
| K2 | 장난 없대 케이팝 진짜 뭐지? 그 프랑스 그 가이드분이 말해준 건데 그 저번 주에 방탄소년단 했는데/본인 딸도 한국인이야 근데 이제 콘서트 티켓을 끊어주려고 했는데 암표도 없대 티켓팅[그렇다더라 그거 진짜 비싸게 팔린대 진짜 장난 아니래 그래서 우리 너무 놀랐어 길거리 다니는데 가끔 막 케이팝 하길래 딱 봐도 우리나라 아이돌 노래인데 막 춤추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코리안인 걸 잘 모른대 /그런 걸 잘은 모른대/그니까 거기가 완전 그니까 완전 광팬이지 않고서야 이런 게 막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 팝 좋아할 때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얘네가 영국인인지 미국인인지[사실 잘 모르잖아 발음 아니고서야 얘가 뭐 남미앤지 뭔지 모르는 것처럼 얘가 코리안인 줄을 잘 모른대 그니까 뭐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는 뭐 외형적으로는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차이니즈가 더 익숙한 거지 코리아보다 그래서 솔직히 아직 거기 가서 뭐 농담 삼아 들었던 게 한국인이라 그러면 사우스 코리안이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그랬어 [놀스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진짜 많아 |
| K1 | ☆응 ★걔네 거기 가는 거 거의 뭐 하늘에 별 따기  ☆어? ☆그냥 아시안…아시안 아이돌? ★ 얘네가 영국인지 ★아 ★아… |

|  |  |
| --- | --- |
| K3 | 근데 나도 독일어를 전공을 하잖아 전공을 하고 나름 이제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독일어를 너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왜냐면 외고 다니는 애들은 이미 나보다 훨씬 잘하는 상태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메리트가 안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독일을 내가 갔는데, 원래는 한 학기만 교환학생을 있는 거였었거든? 근데 이제 독일어를 사실 교환학생 애들이랑만 있다 보니까/오히려 독일어 연습은 안 하고 맨날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야. 어어 그리고 또 막 이제 서양 애들도 있다 보니까 너무 영어로 대화하는 게 너무 그게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런 진짜 딱 수업시간에만 독일어를 쓰고, 수업이 끝나 면은 이제 안 쓰고 영어만 쓰다 보니까 독일어가 전혀 안는 거야 그래서 내가 6개월 하고 나서/한국을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진짜 6개월 동안 내 독일어가 정말 하나도 안는 거야/그래 가지고 내가 맨날 시장 보고 이런 기본적인 독일어 밖에 안 쓰니까 이대로 들어 가면은 좀 내가 여기서 뭘 한 건가 싶어 가지고… |
| K4 | ☆응 맞아 처음에 너가 그랬잖아 ☆응  ★내가 할 수 있는 건 영어밖에 없으니까 ☆응 ☆응 |
| K4 | 아라 뭐 시험 봐가지구… |
| K3 | 어어 그래가지고 한 학기 더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뭐였냐면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예 거기 그 독일/대학교 들어가려는 외국인들 있잖아/독일 들어가려는 외국인들은 무조건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 이제 조건부 입학이 된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 독일 학교에 조건부 입학이 돼가지구 그 어학시험을 통과를 하면은 이제 난 그 학교 정식 학생이 되는 거란 말이야/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학시험을 통과하려고 그 반에 들어갔었단 말이야 |
| K4 | ★대학 ☆응 ☆응응 |
| K4 | 대학 따로 휴학하고/따로 공부한 거구나? |
| K3 | ★응응 |
| K3 | 따로 공부한 거야 근데 진짜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 왜냐면 맨날 맨날 맨날 학교 가고/와 진짜 맨날 왜냐면 우리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야 맨날 맨날 학교 가는 거 익숙한데…/오후 수업이고 종강 있고[그러는데[다시 진짜 수험생처럼 매일매일 학교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맨날 맨날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은 학식 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도서실[가고 어어 이렇게 몇 개월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안 늘 수가 없어 |
| K4 | ★그때 진짜 많이 늘었어? ☆응  ☆응 대학교 가면~ ★응 맞아 맞아  ★몇 개 밖에 없는데 ★또 공부하고 공부하고… |
| K4 | 안 늘 수가 없는 편이지 일단 학교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
| K3 | 맞아 그랬지 근데 그걸 하고 근데 그게 시험을 7월에 봤거든 근대 7월에 보고 나서 까먹었어. 지금 벌써 9월이잖아 안 쓰면 다 까먹는다니까/진짜 다 까먹어 영어도 다 까먹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 사실 내가 독일에 있으면서/프랑스어를 너무 배우고 싶은 거야/왜냐면[은 어 왜냐면은 프랑스어가 진짜[내가 독일어 독일어는 진짜 발음이 안 예뻐/약간 가래 끓는 크 소리가 [근데 거기 있다가 프랑스 애들을 만났는데/진짜 발음이 너무 예쁜거야 그리고 언어가 너무 고급 지게 생겨 가지고 너무 그걸 배우고 싶어서 프랑스 교재를 싹 다 샀다? 그게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교재라 그래서 그거를 샀어 프랑스 가가 지고 다 샀는데 그래서 CD 들으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
| K4 | ☆아아 ☆어 ☆ (웃음) ★딴거, 딴거 공부 할려고? ★어어  ☆어 맞아 맞아 ★ 크 막 이러면서 ☆응 ☆진짜? |
| K4 | ★아 독일어도 하면서 프랑스어도 같이 했어? |
| K3 | 어어어 프랑스어 근데[어어 프랑스어 했는데 이게 뭐냐면 프랑스어 철자를 보면은 이해는 한다? 그니까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밥 먹어라는 뜻이야라고 이해를 하거든? 근데 읽지를 못해 내가/ |
| K4 | ★대학 다닐 때? ★아아아 |
| K4 | ☆아 철자만 철자만 암기한 |
| K3 | 응 진짜 그림이야 그래서 그래서 프랑스어 바로 포기했어. |
| K4 | 아 지금 안 해? (웃음) |
| K3 | 지금 안 해 아 이건 아니다 이러고 포기했어 |
| K4 | 독일에서 뭔가 되게 많이 했다 너 |
| K3 | 응 좀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랬지 |
| K4 | 난 이제 가야 되는데 걱정되는 게 내 영어 바닥인데 내가 하겠다고 가는 건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라는데 도대체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말을 건네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도 토익 공부하는 게 내가 토익을 딸려고 하는 게 아니라[영어공부하는데 기초 문법 같은 거도 뭐 하라고 거기서 뭐 연계되는 대학? 거기서/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하는데, 가면 테스트 이런 거 좀 할 때[어 어학원[어학원 통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지점도 여러 개 있더라 |
| K3 | ★아 근데 가면 진짜 바디랭귀지로 다 해 가면  ★영어공부하려고? ☆응  ★응 너 유학원 통해서 가는 거야? 아니면은 학교에서 어학을…  ★아~ |
| K3 | 그러면 그 어학원에서는 영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영어공부를 어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
| K4 | 나는 지금 토익식으로 그냥 어학원 그냥 해커스에서 하고 있고 나도 문법 좀 하다가 일단은 거기를 가도 시험을 보니까/레벨테스트를 보니까 레벨 테스트용으로 그냥 공부하라고 하더라고 가면 회화식으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 |
| K3 | ☆어어 |
| K3 | 너 토익 언제 봐? |
| K4 | 나 이번 달 말에/ |
| K3 | ☆이번 달 말에 본다고? 너 토익 공부 한지 얼마나 됐어? |
| K4 | 나 이제 한 달 넘었…이제 두 달 째지? |
| K3 | 아냐 할 수 있을거야 |
| K4 | 나는 점수를 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3품 제도가 있는데[그게 창의품이라고 그래서[어 진짜로 그거를 창의품이라고 그래가지고[컴퓨터 자격증 같은 게 있어 [그런 거도 따야 되고 토익점수 컷 해가지고 따야 되고 한번 봉사점수 40점도 채워야 되고 40시간 [응응 무조건 들어야 돼 조건이야/근데 이거 못하면 유예 시키면 돼 일부러 유예하고 싶은 사람들은/어~ 그렇게 해서 유예 시키고 막 이러는데[근데 우리 무용 컷은…그니까 과마다 틀린데 그냥 550점 정도? 그냥 진짜[550점은 쉽게 넘는다 해가지고[내가 딱히 지금 엄청 점수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닌 편이[고 |
| K3 | ★그냥 어떤 유형인지? 아니면은..  ★3품제도가 뭐야 ★신라시대?(웃음)  ★신라시대에 나오는…  ★아 어어어 ★졸업하려면?  ☆에바다 ★안 채우려고?  ★근데 토익이 얼마여야 돼? ★아 |
| K3 | ★근데 그래도 하면은 딸 수 있어 ★할 수 있어 |
| K3 | 아니 근데 나도 사실 토익은 준비를 안 했었거든? 왜냐면은 항상 하면 토플 준비하고 그랬었어가지고 토익은 나도 처음인데 나도 11월에 본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근데 나는 학원을 안 다니고/혼자 시간 날 때 하려고 왜냐면 지금 학기 중이니까 뭔가 확 엄청 또 빡센 거여 가지고… |
| K4 | ★근데 꽤 지금 공부하지 않았어? ☆응 |
| K4 | 11월이면 빡세지 않을까 어학 성적이… |
| K3 | 그래서 약간 좀 고민돼 취소할까? 이거 4만 4천원인데 아니 왜냐면은 내가 왜 11월에 그게 중간고사 끝나는 다음 주거든? 그래가지고… |
| K4 | 근데 토익은 진짜 빠짝 한 달 빠짝 한 달에서 두 달 해가지고 그때 딱딱 두세 번 보는 게 좋지 제일 낫지 질질 끌 필요 없어 |
| K3 | 근데 토익은 차라리 학원 다니면은 선생님들이 팁도 주고[스피킹 리스닝 도와주잖아/ |
| K4 | ★어어어 ☆<>응 |
| K3 | 근데 내가 학원을 안 다니면서 하려고 돈도 조금 아깝기도 하고 모르겠어 너무 학원까지 다니면 너무 빡세가지고 |
| K4 | 근데 강제성이 생겨야… 나도 수진이가 추천해줘가지고 잠깐 한 달? 한 달반쯤 다녔나 내가 토익시험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가 원래 진짜 550 진짜 기본반을 들으려고 했는데 얘가 무조건 높은 반 높게 잡으래/어차피 하면서 문법 다 다루고/ 750점대 하면 주는 자료가 틀리다고 무조건 버티라고 처음엔 자기를 [욕할 거래 와 정수진 하면서 욕을할 거래 근데 아니래 무조건 버티래는 거야/ 근데 나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이러니까 그래도 무조건 버티래/처음에 자기도 못 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도 추천해주길래 들었어. 처음엔 너무 모르겠는 거야/내가 이게 두 달 과정이잖아 근데 첫 번째는 첫 번째 과정을 내가 못 듣고 두 번째 달부터 듣게 됐어[ |
| K3 | ☆아 ☆맞아 ★버티래(웃음) ☆어 ☆어 ☆어  ★두 번째 달부터 들어갔다고? 첫 번째 달 건너뛰고? |
| K4 | 어/원래 7,8월이 하나인데 내가 7월에 원래 다른 문법 공부를 할려 했다가 내가 나 진짜 기초부터 다져야겠다 나 진짜 못하니까 이래가지고 기초를 했는데 진짜 쌩 기초여 가지고 나랑 너무 안 맞는거야 그래서 바꾸려했는데 이미 뭐 기간이 지났다고/바꿀 수 없다고 그래서 7월달은 내가 집에서 혼자 다른 걸로 공부하고 8월달부터 토익식으로 공부 할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550반을 들을려 했더니 걔가 750 들으라 그래서 /딱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그때 두 번째부터야 이미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하고 /나 미치겠는 거야 진짜/처음에는 그랬는데 또 2주째부터는 괜찮더라고 과제도 익숙해지고 문제풀이 패턴 같은 거도 익숙해지고 지금은 오히려 쉬운 느낌?/그때 빡세게 해서[ |
| K3 | ☆뚝심보소 ☆안된대? ☆어어 750 들었어  ☆어떡해 ☆진짜 너무 스트레스겠다 ☆아진짜? |
| K3 | ★그거 주말반이야? 아니면 맨날 반? |
| K4 | 나 3일 주 3일 |
| K3 | 주 3일? 저녁에? |
| K4 | 어 아니 저번 달에는 저녁이었는데 지금은 3시…학교 끝나고 바로 종각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
| K3 | 아 역시 교통의 요지 대학로 좋습니다 한 번에 가죠 종각까지 |

(일본 거주 경험 한국인 회화)

|  |  |
| --- | --- |
| K5 | 우리가 어쨌든 남들보다 빨리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잖아/공부하면서 어땠[어? |
| K6 | ☆응 ★(웃음) |
| K6 | 아니 근데/되게 뭐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국어가/크게 2개인데/그니까 국적으로 치면 내가 한국인이니까 외국어 일본어랑 영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어떻게 보면 나는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배워가지고/약간 그거를 외국어로써 이렇게 인식 안 하고/익혔던 것 같아서 같은 외국어이지만 일본어를 배웠을 때랑 영어를 배웠을 때랑 느끼는 어려움이 달/라 응 |
| K5 | ☆응 ☆응 ☆응 ☆응  ☆그치 나도 ☆맞아 ☆맞아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
| K5 | 근데 나는 영어 공부했을 때보다 어쨌든 나는 전공이 일본어랑 베트남어잖아/그러다보니까 이제 베트남어를 배우…일본어랑 영어랑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데, 나도 아까 막 말한 것처럼 일본어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우리가 해왔으니까 좀 진짜 모국어 배우듯이? 하는 게 있어서/다른 애들이 예를 들어서 문법 가지고 이건 왜 이걸 써야 돼?/ 했을 때 설명을 못하겠는데[근데 베트남어나 이런 거는 진짜로 외국어 배우는 느낌도 나고/ 그렇지 |
| K6 | ☆응 ☆응응응 ☆응 ☆어어어 ★맞아맞아 어 그런거 같아 ☆응 |
| K5 | 그럼 뭔가 외국어 배우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공부하는 방법 |
| K6 | 공부하는 방법? 음…많이 보고 많이 말하는 거? [많이 들어야 나도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
| K5 | ★맞아 ☆맞아 |
| K5 | 실제로 진짜 책에서 보는 거랑/직접 갔을 때랑 완전 쓰는 것도 다르고 이러잖아/ |
| K6 | ☆응 ☆응 |
| K6 | 뭐였지…확실히 내가 작년에 영어 연수원 외연평[다녔는데 그 전후로 약간 그게 달라졌어 아무래도 외연평은 다니는 1년 동안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계속 들으니까 내가 못하더라도/계속 들으니까 그 이후의 공부가 약간 좀 수월해지고 /이런 거지/ 막 문법을 어 왜 이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 이[선생님들이 이렇게 쓰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많이 듣고 많이 써볼려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
| K5 | ★아 어 ☆어 ☆아~  ☆확실히 ★아 자연스럽게? ★나도 |
| K5 | 그리고 나는 약간 해당사항은 없는데 다른 이제 같은 전공하는 동기들 보면은 일본 교환학생 많이 가잖아/근데 교환학생 가기 전이랑 후가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하더라고 실제적으로/ |
| K6 | ☆응 ★아아아아 ☆전 후로 달라지는구나 |
| K5 | 그럼 앞으로 영어랑 일본어 말고는 또 배우고 싶은 건 없어? |
| K6 | 배우고 싶은 거? 일단은 중국어는 한번 해보니까/2주 정도만 해봤는데 너무 안 맞아서/응/중국어는 하기 싫고 만약 하게 된다면 나는 아예 라틴어 쪽으로/하고 싶어 막 이탈리아어/이런거/ |
| K5 | ☆응 ☆아 진짜? ☆아 ☆아 헐  ☆아~ ☆맞아 |
| K5 | 근데 그쪽 언어는 약간 이탈리아어 하나 배워두면은/그 주변 국가들 언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맞아/ |
| K6 | ☆응 ☆응응응 ☆응응 |
| K6 | 그리고 약간 요즘에는 영어…영어 막 할려고 하니까 일본어는 이제 이미 좀 해놨고/영어를 이제 새로 해야 되니깐 비중이 약간 영어에 쏠려 있어서/오히려 요즘에는 일본어보다 영어에서 막 새로 알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재밌고 막 아 진짜 이렇게 쓰는구나 /그런거 약간 일본어는 막 그렇게 막 새로움?...[이 별로 막 그냥 그런 거지 약간 이런 몰랐던 거 알게 돼도 아~이러고…[그냥 어 영어는 딱 새로 알게 되면 어 대박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호기심은 영어 쪽에 좀 있는 거 같아 |
| K5 | ☆응 ☆응 ☆으응 ★이 없지 이젠 ★맞아 이미 도달했어  ☆응 |
| K6 | 너는 뭐가 더 재밌어? 3개 중에?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
| K5 | 나는 근데 뭔가 아무래도 편한 건 일본어고 한데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일본어는 뭔가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해야 되나? /응/ 그니까 배워도 더 이상 새로운 재미를 느끼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영어도 근데 사실 방학 때는 학원 다니고[공부했어도 그게 정말 영어 공부라기보단 나는 토익 준비 뭐 이런 식으로[ 자격증 준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큰 재미는 못[느끼는 것 같아. 대신 베트남어는 이제 전공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맨날 이제 수업 들어가면은 우리는 막 1학년 수업도 다 원어 강의고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되게 진짜 매번 수업 들을 때마다 좀…[그리고 중국어도 나도 너처럼 몇 주? 이렇게 해본 적 있어 가지고 되게 공부하면서 아 베트남어는 이런 식인데[뭔가 문장구조[라던지 그런 것도 이게 또 영어랑도 어순이 다르고 어순이 되게 이상하거든 그래서[이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
| K6 | ☆그냥 익숙해서 ☆맞아 ★응 ★아 ★아아아 ★응응응 ★응  ★응응응 ★응 ★으응 |
| K6 | 아 그리고 막 외국어 하다 보면은 내가 막 딱히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말이 생각이 안 나 일본어가 만약에 생각이 안 나 이러면 막 영어로 생각나고 [그런거 있지 않아?[내가 딱히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아 이거에 딱 맞는 표현이 영어에는 있는[데 일본어론 뭐였지? 약간 이런 거[ |
| K5 |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장구어>★맞아 |
| K5 | 일본어도/되게 막 懐かしい 이런 말[있잖아 뭔가 懐かしい를 한국어[로. |
| K6 | ☆응 ★아 맞아맞아 ★어(웃음)맞아 그런거 |
| K6 | 그런 게 재밌…웃겨 그냥 외국인 선생님들이랑 막 얘기할 때 영어로 생각이 안 나/근데 막 일본어 떠오르고/일본어 밖에 생각이 안 나 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일본어를 한 건가? 막 이런/응 그리고 막 그럴 때일수록 친구들이 만약에 일본어가 좀/능통한 친구랑 같이 있으면은/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무 단어나 말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어 그럴 때 되게 좋은 거 같[아 |
| K5 | ☆응 ☆어~ ☆과부하 ☆응 ☆응응응 ★맞아 찰떡같이 알아듣지  ★응 진짜 |
| K5 | 그리고 뭔가 외국어 배운다는 게 난 어쨌든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일본어만 공부를 했었잖아 그래서 잘 몰랐는데 뭔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정말 외국어 배운다는 게 언어를 배워서 해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약간 그 나라 언어 자체에 그 나라의 뭐[사회적 그런 거라던지 역사던지[다 알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렇게 신기했[어 |
| K6 | ★응응응 ★응응응 ★아 맞아 맞아 맞아 |
| K6 | 그 말 자체에 그 사람들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를 들면은 막 일본어는 정중하게 막 얘기하는 게 아예 언어에 [아예 녹아있으니까 그니까 영어를 하다가 일본어 갑자기 할려니까[막 불편하고[영어는 어떻게든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액센트 세게 세게 나가[면서 하면 어떻게든 뭔가 되는데 일본어는 뭔가 또 이제 조곤조곤[이렇게 조금 아름답게 얘기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두 개가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회화[할 때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그런 어려움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애 연수원 막 다닐 때는 막 영어 주입을[엄청 받고 있었으니까 번역 일 들어오고 통역 나가고 이러면은 헷갈렸어 막[약간 영어 텐션으로 나오고 지금은 또 안 다니니까 괜찮긴[한데 양쪽 다 하기가 진짜 힘들구나 [라는걸 느꼈어 맞아 진짜 힘들어 둘 다 잘하는 거는 일본어만 했을 때는 딱히 못 느꼈는데[영어회화 딱 다니고 나니까 영어를 하게 되면 일본어가 막 급속도로 낮아지는 느낌이고 또 영어를 그만하자니 영어는 또 내가 잘 못하니까[잠깐이라도 놓으면은 [완전 0이 될 것 같은 거야 [0이되면 안 되잖아 [어떻게든 유지할려고/ 일본어는 뭐 잠깐 버려놔도/다시 주울 수 있는데/ 영어는 한번 놓으면 다시 헬로부터 시작해야 돼[가지고 nice to meet you? [어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이거 둘 다 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
| K5 | ★어어어 ★맞아맞아맞아 ★아아아  ★아아아 맞아 맞아 ★어어 ★맞아맞아 ☆아 영어 그런 게 있겠다 ★그치  ★응 ★아아아 ★응 ★맞아 둘 다 잘하기가 진짜 힘들지 ★맞아  ★응 ★아아 ★난 마이너스 ☆응응 ☆응 ☆맞아  ★(웃음) ★my name is..(웃음) ★으응 ☆와…그러겠다 |
| K5 | 난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진 도달을 못해서 모르겠어 |
| K6 | 나는 잘 못해 지금도 안 해가지고 못하게 됐어 |
| K5 | 맞아 그리고 되게 이건 일본어 공부하면서 신기했던 건데/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로 단어 외우거나/문법 공부하거나 이렇지 우리가 회화 공부한 적은 없잖아 회화 말을 한다고 해도 되게 면접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안녕하면서 그런 건 안하잖아/ 그래서 내학들어가고 나서 처음 이제 전공수업 중에 회화 수업을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 본문 같은게 이제/ |
| K6 | ☆응 ☆응응 ☆어어어 ☆응 |

(일본인 회화)

|  |  |
| --- | --- |
| J1 | どんなことした？ |
| J2 | うーん、まあ韓国においては、まあもと、元々自分が k-pop 好きだったというのが始まりだったからそのなんだろ歌番組の[その韓国語の字幕と右に逆版の日本語の[字幕を見比べて、あ、この単語はこういう意味なんだなというので語彙力をちょっと付けようと頑張ったり[うーん、なんか最初その韓国語一個も読めなかった時は、自分で本を、その一週間で読めるようになる韓国語[みたいな本を買って、それで中学生の時に毎日一つずつやって、それで読め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感じで勉強はしてた/で、それがやっぱり自分が好きなことだからどんどん頭に入る…どんどん頭にこう入ってきたからやっぱり今このなんだろ、[今ここにいるかな[最初はそんな感じだった/うん　みわこは？ |
| J1 | ★あ ★うんうんうんうん ★（笑い） ★うんうんうんうん  ☆うん ★ここにいるの？ ★（笑い） ☆うん |
| J1 | 私？私は、なんかめっちゃ韓ドラにはまって/それで字幕なしで見たいなと思って勉強始めたんだけど、なんか本まず買うじゃん/なんかハングルみたいな/ハングル読めるように一週間で頑張るみたいな自分で、なんか私はそういう本みてやるのが自分でこつこつやるのが無理なのね/あきるのさ/ |
| J2 | ☆うん ☆うん ☆うんうん ☆うん |
| J2 | ☆あ、わかる/ |
| J1 | ☆そうそうそうそう |
| J1 | 途中であきらめるからなんかこの際、なんか普通になんか韓国人に教えてもら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日本にいる？/韓国の留学生に一対一で/中学ぐらいの時始めて、で、そう毎週一回ぐらい？/やってハングル覚えたみたいな/感じかな |
| J2 | ☆うん ☆えーすげ ☆うん ☆うーん |
| J2 | いいな状況が恵まれている |
| J1 | いやでもそれがよかった。なんか/自分でこつこつ私できないから…/ |
| J2 | ☆うん |
| J2 | ☆あ、なんか人とやることが…/ |
| J1 |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やらないとね |
| J1 | ちょっとめっちや怒られるというちょっと怖さもあったから/そう/<맞장구어>☆そうそうでもちょっと強制でもちょっと強制されないとあんまやらないから/って感じだ/ |
| J2 | ☆（笑い） ☆ 強制やん/ ☆うん ☆うん |
| J2 | まあそういうのも大切かもしれな[い |
| J1 |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ちょっとちょっと/焦らせられるみたいな/感じがあればいいかなって思って/後は、そのなんだろ自分一人でやってたわけじゃなくて韓国人の人から習ったから/なんか発音とかも/その場で直してくれるし、分からないこと聞いたりとかもできたし/後、文化とかそういうのもその場で聞けたから、まあそれがよかったかなって思った。/ |
| J2 | <☆うん ☆うんうんうん ☆うん ☆うん ☆うんうん ☆うん |
| J2 | ☆言語とともに文化も[学んだみたいな |
| J1 |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
| J1 | うん…日本にいる時は、その現地の人？行けないから/その日本にいる韓国人の人に習うのがよかったかな/まあでもこっちね、来たけど、/ねえなんか来たけど、/なんか実際なんか来たらさすぐになんか韓国人の友達できるとか思ってたけど、/全然できないし、本当に/なんか今もなんか６ヶ月？７ヶ月ぐらいいるけど、もうなんかもういっぱいもう手に余るぐらい友達いるわとか思ったけど、全然いないし/夢のキャンパスライフとかないし/ |
| J2 | ☆うん ☆うん ☆（笑い） ☆（笑い） ☆うん ☆本当に  ☆（笑い） ☆（笑い） |
| J2 | ちょっと予想外の展開が起こっているっていう…/ |
| J1 | ☆そうそう、予想外の展開が起こっているし、まあ普通に日本にいても友達ってそんな普通に簡単に出来るもんじゃないかな/そうなんかなと思わなくもないけど/ |
| J2 | ☆まあ ☆うん |
| J2 | そんな日本にいるからっぽいぽいぽいぽいって日本人の友達がね/できるわけでもないし/やっぱ外国だし、もっと難しい。 |
| J1 |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そうそう |
| J1 | ☆そう、なんかこっちはなんか韓国好きで興味があるからだけど、あっちとしたらなんか別に日本/ってそんなね/日本に興味ある人だったらなんか、あ、留学生なの？みたいな感じで仲良くなれるけど、/ね？/難しい。 |
| J2 | ☆うん ☆うん ☆うん ☆ね |
| J2 | もう興味ない人には本当に/あ、って感じ。なんかそんな当たり障りもない存在みたいな/ |
| J1 | ☆そう ☆あ、そうそうそう |
| J1 | しかもさアジア人じゃん同じ/あんまりさ、はたから見たらさ留学生って自分で言わないと分からないじゃん/私は特にちょっと日本人っぽい顔してるから/すぐ分かるけどさ、ね、/だってよく間違えるじゃん韓国人？って/まあ中国人もあるけど、/ね/辛い/ |
| J2 | ☆うん ☆うん ☆うん（笑い） ☆ね、むずい ☆まあ  ☆まあ、うん ☆ね ☆ 辛い |
| J1 | 韓国にきて、単語とかは、語学洞で/習ってるやつは、まあ実際あれかな生活/する面では使うものが多いからまあまあまあ/後、私なんて日本にいる間トイレ詰まるみたいな単語知らなかったからね/自分の部屋のトイレ詰まった時/やべ、語学洞で習ったやつ使う時が来たって/使ったもん。やったって |
| J2 | ☆うん ☆うん ☆うん ☆（笑い） ☆（笑い） ☆（笑い） |
| J2 | あの分割払いとかもあの、/語学洞で習ったやつを次の日ぐらいにお店で出てきて、/そう |
| J1 |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お、来たこれ |
| J1 | そういう時なんかやってて楽しいなって思うけど/ |
| J2 | ☆うん |
| J2 | ついに使う時が来た/という |
| J1 | ☆そう、ついに |
| J1 | まさかトイレ詰まるなんて/使うと思ってない/ね？/あ、その時感動したのはまだ覚えてる/うん、使ったまさかの |
| J2 | ☆（笑い） ☆うん ☆うん  ☆さすがに使わねえだろうと思ったら |
| J2 | しかもうちの部屋何回も詰まったし/ドンマイ/あ、笑い止まらねえ　まあまあまあ/ |
| J1 | ☆うん ☆（笑い） ☆まあまあまあ |
| J1 | ☆確かに、詰まりやすいということで/韓国のトイレは/まあね、使えてよかった/ |
| J2 | ☆（笑い） ☆（笑い） ☆（笑い） |
| J2 | あ、おもしろい。ね/ |
| J1 | ☆うん まあ、でもやばい最近韓国語しゃべってないんだよね/ |
| J2 | ☆うん。語学洞でしかなんかしゃべって/ない |
| J1 | ☆ね、しかも語学洞にベトナム人めっちゃしゃべるから/ちょっと、ベトナム人しかしゃべってなくて、なんかずっとシーン…ね、いやでも実際の韓個人の友達と一対一で話してる時なんか自分の発音が大丈夫なのかなとかちゃんと通じるのかなってすごい心配で、/あんまりそんなしゃべれないんだよね。 |
| J2 | ☆うん ☆うん |
| J2 | なんかルームメイトとしゃべる時もなんかひやひやしながら/しゃべる/自分の発音があってるのかなとか |
| J2 | ☆うん ☆うんうんうん |
| J1 | なんか通じなかった時にはもうどうしようとか |
| J2 | 通じなかった時もすぐえっと、、出て英語を出すってい/う |
| J1 | ☆ああ、英語出てこないからまず, なんかカトクとかだったらなんか調べられるからさ、ちょっと時間おいて返信すれば/いいけど、その場での会話がさちょっとあ、って/どうしよう/で、ね、なんか習った単語なのにとっさに出てこなくない？なんか/なんでだろうね |
| J2 | ☆うんうん ☆うん ☆どうしよう ☆うん |
| J2 | わかんない、ちょっとパニックになったら/出ないんだよ |
| J1 | ★そうそう やっぱちょっと語彙力を上げ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う/泣いた/ |
| J2 | ☆うん、辛い <반복>☆ 泣いたあ |
| J2 | まあとにかく後３ヶ月/しか現地に…/み、みわこは帰りたいだろうけど、 後３ヶ月しか現地で学べる機会っていうか/時間がないからこの残り３ヶ月どう過ごしますか？ |
| J1 | ★うんしかない ★早く帰りたいたいけど ☆うん |
| J1 | まじやだあ。残り３ヶ月なんか一瞬で終わるのにそんな。無理だ、ねえやだ。ゴールなくない？言語って/どこまでやったらなんかないじゃん。 |
| J2 | ☆うん ☆うん |
| J2 | 終わりみたいなのがない[から |
| J1 | ★そう、だからやだ。しかも自分よりできる人なんていっぱいいるのに/困るよ。なんか留学行ってるから大丈夫とか就活のやつとか言われるけど、いや、行ってるだけで、中身なんかちょっとね？/クソみたいな勉強しかしてないし、遊んでるだけじゃんって言われたら、まあすみませんって感じだし/もう、どうしよう/いやいやいやどうしよう/やだもう、なんか英語やらないとやばいな/英語 |
| J2 | ☆うん ☆うん ☆（笑い） ☆うん ☆どうしよう ☆うん |
| J2 | いきなり英語？ |
| J1 | うん。いや、彼氏できたら言語速いの/かな |
| J2 | ☆ええー？ |
| J2 | やっぱ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ろうとするためにいっぱいしゃべるから[伸びるんじゃない？ |
| J1 | ★ああ |
| J1 | 元前ルームメイトね |
| J2 | うん？ |
| J1 | 韓国人彼氏できたじゃん。 |
| J2 | 何人だったっけ |
| J1 | aさんが韓国人彼氏できて[でもな/そんな伸びたかどうか分からないけど/잠시만요って言ってるのと네네しか[ずっと 聞いたことないけど そう、電話[で |
| J2 | ★ああ ☆うん ☆うん、まあ  ★あ、電話で？ ★아니야~とか/ |
| J1 | ☆そうそう |

|  |  |
| --- | --- |
| J3 | 今まで何年勉強してきてるんだろう |
| J4 | なんかさ、ちゃんと[さ… |
| J3 | ★やったのは中学生の時だね/ |
| J4 | ☆そうだね、中１からabc習って…[で、 |
| J3 | ★高校３年ま[で |
| J4 | ★そうだね |
| J3 | ６年間 |
| J4 | ６年間…いやでもなんかさ、スピーキングのさ、[授業とかなかったからさ/だからなんて言うの[そう、なんか How are you? I’m fine and you? みたいな、]なんかそのなんか形式みたいなさ/みたいな感じだったよね/ |
| J3 | ★うん ☆うん、なかった ★リーディングがほとんどってこと ★そうそうそうそう  ☆うんうん ☆うん |
| J3 | でもなんか、中学生で習った単語は、/なんかずっと忘れてないなというのはある |
| J4 | ☆うん |
| J4 | え、なんかさ、あれあったじゃん。あれあった？なんかさ、なんだっけ、スペリングコンテスト/え、それで、めっちゃやらされた/まりは |
| J3 | うん、あった ☆うん |
| J3 | 高校でもあったけど、なんか/なんかコンテストというよりかは、なんか冬休みの宿題を兼ねたその結果を見るための[やつみたいな感じで、私が覚えるのがめっちゃ好きだからっていうのもあるけど、それでめっちゃ覚えたけど、もう忘れた。 |
| J4 | ☆あ、スペコあったんだ、高校 ☆あーなるほど |
| J4 | そうなんだよ、なんかさ一回、何て言うの、なんかパッて、例えば、テストのために覚えるじゃん/けどさ、/絶対使わないとさ/それってもうさ/うん、だからさ、やっぱ使わないと意味ないよね。てか使わないと忘れていくがちで |
| J3 | ☆うん ☆うん ☆うん ☆もう忘れちゃう |
| J3 | 中学でやったのは、結構覚えてる気がする。まあでもなんか/うん、基礎のやつだから、なんかそれの一個の意味しか分からなかったから、１つの動詞にさ、めっちゃ基礎の動詞でもさ/takeとかさ/いろんな意味とか/いろんな使い方/があるから/でもなんか一個とか/の意味しかあんまりやらなかった気が[する。 |
| J4 | ☆うん 基礎、基礎だから ☆うん ☆ああー ☆ああー  ☆ああー ☆あ ☆あ、はいはいはいはい ★取るみたいな[ね |
| J3 | ★そう |
| J4 | ☆確かに。 |
| J3 | 中学の時にもっとなんかちゃんと勉強してたら… |
| J4 | うん、なんかさ、やっぱさ、最初、ちっちゃい頃からさ、触れてた方がさ/絶対さ/うん、いやだってさ、/バイリンガルの子とかさ、/なんか、ちっちゃいくてさ、なんか、なんも分かってないうちからさ、/それとか聞いててさ、え、なんかさ、韓国語の話になっちゃうけどさ、  /韓国語だったらさ、なんかさ、このなにまる、사람とか/사랑とかさ、/こんなのさ、なんか聞いてる、なんか日本人が聞く耳だったらさ、あんま分かんなくない？/なんかさ、何がＮで、なにがＮＧってみたいな/なんか、韓国人が当たり前になんか聞き分けられる/そう、音が日本人には聞こえない/って感じ[仕組みになってる。/なんかさ、なに、さんまとか、え、なんか韓国語の授業やったんだよね、まり/ |
| J3 | ☆うん ☆なんか、耳、絶対耳大事だから  ☆ 聞かないもん ☆うん ☆うん ☆うん ☆うん ☆うん  ☆わかんないよね ☆うん、それそれそれ ☆うん 音? ☆うん ☆うん  ★もう聞こえないし… ☆うん |
| J3 | ☆うん、そう、日本語にもその使い分けは/あるけど/気にしてないよね。 |
| J4 | ★そう ★あるけど気にしてないから |
| J4 | さんま、あんこ[後なんだっけ なんだっけＮがつくやつ、あんまん、あんまん/あんまん、あんまん、 |
| J3 | ★あんこ ☆（笑い） |
| J3 | なんか、なんだろう |
| J4 | なんだっけＮがつくやつ |
| J3 | さんま、あんこ |
| J4 | あんまんあんまん[あんまん、あんまん、 |
| J3 | ★あんまんとか「ん」じゃん |
| J3 | 舌が上につくやつとつかないやつみたいなやつなんじゃなかったっけ、あんまんのあんってあんまんじゃなくない？あんまんＭ、Ｍだよね |
| J4 | あんまん、あんまん |
| J3 | あんまんＭ、Ｍだよね |
| J4 | あんまん、あんまん |
| J4 | なんかそれの違いとかさ、/聞くしかないよね/なんか聞いてもさ、分からないね/なんかさ、あ、今みぽがＮ使ったとかさ、Ｍ使ってるとかさ/ |
| J3 | ☆うん、なんか聞き… ☆うん ☆うん ☆うんうん |
| J3 | ☆うん、そうやって意識してないけど/でもそうやって言ってるから/ |
| J4 | ☆うん ☆うん |
| J4 | なんか発音ね、なんかなんていうか/ |
| J3 | ☆発音ね |
| J3 | 発音、ずっと聞いてないと分からないよね、発音…でもなんか英語もだから本当にもっともっもいっぱい聞いてたら/絶対話す時に違っただろうと/めっちゃ思う。/ |
| J4 | ☆ね、なんか ☆ 確かに ☆ 確かに |
| J4 | なんかさ、/耳よくないとさ/耳よくないというか、耳でさ、なんか音がさ、なに音をなんか取るみたいなのをなんて言うの？口にする前に/うん、そのまま |
| J3 | ☆うん ☆うん ☆聞いたのをそのまま |
| J3 | そのまま真似して言う練習をもっとしたかったなって後で思った/ |
| J4 | ☆ね、なんかシャドーウィングとかなかった？ |
| J3 | シャドーウィング、高校の時はあったけど、中学は、やらなかったと思う[中学校なにした、なんかもう教科書の会話からなんか単語勉強して、なんか、訳してみたいな[訳がめっちゃ多かった[まあ訳？文法がちゃんとしてるのはいいこと/だと思うけど[あまりにも話せなさすぎて/重傷だと思う/ 高校の時その英語のしゃべる選択のクラスみたいな/スピーキングのクラスがあったけど、/その、外国人の先生が教えてくれるやつ/  もうあまりにもしゃべれなさすぎて、[みんなみんな、そうだけど[出てこないから[言葉が/そう、なんか |
| J4 | ★まじか ★あ ★あ ☆うんうん  ★なんか話せない ☆それ重傷だよね結構 ☆まじ日本人は重傷だと思うまり ☆うん  ☆うん ☆うん |
| J4 | ★え、みんながってこと？自分が？ ★あ  ★あーそれね、 ☆なんか簡単な言葉も出てこないよね |
| J4 | なんかさ、/あれじゃない？なんかさ、なんか、外国語になってさ、なんか自由に話してくださいといわれてもシーンってなっちゃうよね/何しゃべればいいか/分からないし、話題も出てこないし、みたいな |
| J3 | ☆うん ☆そう ☆そう |
| J3 | なんかそのうんーって考えてる間に何かを言うみたいな/ちょっと考えさせて/みたいなのも言えないから/なんかシーンってなっちゃうし、/なんかそれなみたいな/のも言えないから/それさえできればもっとなんかナチュラルに話せるのになって/ |
| J4 | ☆うん ☆うん ☆うんうん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うんうん ☆うん |
| J4 | ☆確かにね、でもやっぱり行っちゃうのが一番でねってめっちゃ思うまりは/なんかもう自分、なんかさ、どんだけ勉強してきてもさ、いやなんかまり中学校の時は、まあまあさ、/なんか英語出来る感じのさ/あれだったの/なんか偏差値とかあるじゃん/で、それで出来る感じだったけど、でもまじ留学行ったらはい、もう終了みたいな/何も分かりません/みたいな |
| J3 | ☆ああそう、それは一番だよね ☆うん ☆うんうん ☆うん ☆うん ☆うん |
| J3 | でも毎日聞いてたから/こうフレーズとかさ/みんながどういうの使ってるか/みんながこういう状況でこう使ってるって/なったら、なんか単語の意味とかも想像できるようになるじゃん/ |
| J4 | ☆そうそうそうだからだからやっぱ伸びるんだよね  ☆うん ☆うん ☆うん |
| J4 | ☆うんそうそう、なんか全体的からなにかなんとか言ってるな/みたいな、雰囲気からどんどん/わかってくるんだよね |
| J3 | ☆うん ☆うん |
| J3 | で、それもなんかもう一回聞いたら、あ、これ/こういう時に使うんだ/みたいな/それね、それしかないよね/なんか私の場合もさ、その韓国語さ、教科書一回も使ったことない[し、中２ぐらいからずっと聞き始めて、毎日アホみたいに[動画みまくって、バラエティー番組を最初は、日本語字幕付いてるやつか、英語字幕付いてるやつ/見て、こう照らし合わせたりとかして/何回も出てくるやつがどうしても分からなかったら、調べてみたとか/ |
| J4 | <☆うん ☆うんうん ☆めっちゃゃそれね ☆うんうん ☆うん ★そうだよね  ★動画みまくって ☆うんうん ☆うん ☆うん |
| J4 | え、なんかさ/あれは勉強した？ハングルは勉強した？ |
| J3 | ☆うん |
| J3 | ハングルは一番最初に勉強したけど/でもそれがそんな一発で覚えられないじゃん/パッて/だけど、テレビ見てるとさ、韓国の番組めっちゃ字[幕うん、めっちゃ多い、なんか字幕っていうより、/うん/ |
| J4 | ☆あ ☆うん ☆うん ★字幕  ☆なんか、バーンって出て　☆わかるわかるわかる |
| J4 | なんか、なんでやねんみたいな |
| J3 |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れ/分かりやすいから/めっちゃバラエティー番組とかその/気持とかがさ/うんうん/それを見て、あ、これがこうなんだみたいな、/こういう音なんだみたいな、覚えて、テレビ見てるうちになんか、聞こえるようになってきて、で、日本語と韓国語の漢字語/みたいなやつ一緒だから/それで、連想して、あ、これとこれはこうで/初めて聞く単語もそれから連想して分かったりとか、なんか、ね、そんな感じ |
| J4 | ☆うん ☆うんうん ☆確かに ☆ワイワイって書いてあったりして ☆（笑い）  ☆うん ☆あ ☆確かに　☆うんうんうん |
| J4 | え、なんかさ、/まりは韓国語のさ、授業はさ、なんかこう中級、上級とかあるじゃん/なんかさ、上になるにつれてなんか感じ語がさめっちゃ出てきてさ/そう、だからなんかさ漢字…/そう、なんか音読み？なんていうの/何読みっていうのあれ、それはさ、なんか本当にその一文字で読むみたいな感じじゃん/だからなんかさ、想像ししやすいけど/難しい。 |
| J3 | <맞장구어>☆うん <맞장구어>☆うん <맞장구어>☆うん、そうなんだ  <말 앞지르기>☆ 熟語みたいな <맞장구어>☆うん <맞장구어>☆うんうん  <맞장구어>☆うん |
| J3 | なんか、自分で馳せないけど/聞いて意味は分かるから/読んで、とか/なんかだからそれがわかるようになってから早かった気がする/分かる単語がパーンって増えた気がする/うん、なんか音も聞こえるようになって、その日本語に頭の中で変えないで良くなった。/うん、そのまま/なんか文字見てても/なんか韓国語って文字そのものには意味ないじゃん/そのハングル/には/なんか漢字みたいに、漢字一文字みたいにそう意味表す/とかじゃないからパットみりゃ分かりづらいけど、めっちゃ早く読め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のはある。 |
| J4 | ☆うん ☆うん ☆うん、読み方ね　☆あー☆あー入ってくるみたいな  ☆あ、そのまま ☆あー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  ☆うん ☆うん ☆うん  ☆うんうん ☆うん ☆ああ |

1. 任榮哲(2003)은 한일 모두 상대가 자신과 친하면 친할수록 맞장구의 빈도수가 많아지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경우엔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footnote-ref-1)
2. 본 연구는 宇佐美まゆみ(1997), 曺英南(2011)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KUJE 담화 코퍼스의 문자화 원칙’을 참고로 하여 기술하였다. [↑](#footnote-ref-2)
3. 「松本人志のすべらない話」의 청취자가 전부 남자이며, 남녀의 맞장구 빈도수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피투게더」의 분석대상 또한 남자 게스트를 선정하였다. [↑](#footnote-ref-3)
4. 堀口는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맞장구, 예를 들면 감탄사의 「はい」「ええ」부사의 「なるほど」등은 다른 품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품사를 반복표현과 환언표현 등의 표현들과 구별하기 위해 맞장구어(あいづち詞)라고 부르고 있다. [↑](#footnote-ref-4)
5. 朴宣貞(2014)「한국인 중·상급일본어학습자의 맞장구 사용양상에 관한 연구-일본어모어화자와의   
    접촉장면을 대상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footnote-ref-5)
6. 가벼운 미소(スマイル)와 웃음(笑い)은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둘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footnote-ref-6)
7. 水谷(1988)는 공화란 2명 이상의 화자가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발화를 말하며 주로 청자의 말 앞지르기 표현 형식에 의해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footnote-ref-7)